

# 현대차, 올 들어 첫 월간 40만대 판매 돌파

완성차 수출 '웃고' 내수 '울고'  
현대차, 전년비 15.4% 증가  
중국·신흥시장서 판매 호조  
한국지엠 '정상화' 궤도 올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량 증가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조업 일수 축소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감소했지만 중국과 신흥시장 등 해외 시장에서의 고른 판매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량이 41만4222대(국내 5만9494대, 해외 35만4728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3.8% 감소, 해외 판매는 19.4%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판매 40만대를 돌파한 실적이다.

6월 국내 시장에서 판매 감소는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비롯한 근무일수 감소의 영향이 주효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그랜저(하이브리드 2271대 포함)가 8945대 판매되며 국내 시장 판매를 이끌

었으며 아반떼(5928대), 쏘나타(하이브리드 304대 포함)가 5245대 팔리는 등 총 2만1954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증가를 기록해 하반기 판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기아차의 지난달 판매량 증가는 수출량 증가가 주효했다. 기아차는 6월 판매량이 국내 4만6000대, 해외 20만5216대로 총 25만1216대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대비 내수 판매가 2.2% 줄었지만, 수출이 7.8% 늘면서 전체 판매가 5.9% 증가했다.

국내판매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비롯해 신형 K9과 K3 등 신모델 판매가 선전했으나 근무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반면, 해외판매는 중국과 신흥시장의 고른 판매 증가, 해외 인기 모델의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7.8% 늘어나 글로벌 전체 판매는 5.9% 증가를 달성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영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은 6월 한 달 동안 총 4만654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4만3693대) 6.5%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내수시장에서는 9529대를 판매해 연중 최대 월 판매 기록을 세웠다. 내수 판매는 전월 대비 24.2%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6.8% 감소했다. 수출은 3만7017대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최근 출시한 더 뉴 스파크는 판매 첫 달 3850대가 판매되며 전월 대비 50.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고, 전기차 볼트EV는 1621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4056%나 증가했다. 지난 5월 내수시장에서 1014대가 판매된 볼트EV는 두 달 연속 1000대 이상 판매 기록을 이어가며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선점했다.

한국지엠 야심작 이쿼닉스는 초기 선적 물량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385대가 고객 인도를 완료하며 국내 SUV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6월 내수 7120대, 수출 1만4801대 등 총 2만1921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대비(2만6815대)

18.3% 감소한 수치다. 내수는 지난해보다 20.9%, 수출은 16.9%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 QM6 가솔린 모델은 지난달 1513대 판매되며 출시 이래 월평균 약 1500대의 판매 실적을 이어갔다. SM6는 지난달 2049대가 판매되며 상품성을 강화한 2019년형 모델 출시 후 네달 연속 월 2000대 이상 판매를 유지했다.

르노 브랜드 모델인 클리오의 지난달 549대가 출고됐다. 고급 사양들을 대거 적용한 최고급 인텐스 트림의 판매가 90% 가까이 차지해 기존 소형차와 차별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168대 판매로 연간 누적 판매 100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9684대, 수출 2894대를 포함 총 1만 2578대를 판매했다. 이 같은 실적은 내수에서 티볼리, 렉스턴 브랜드 등 주력모델들의 선전과 수출 회복세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중 내수 월 최대실적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에 그쳤다. 무엇보다 내수 판매는 렉스턴 스포츠가 지난 달 역대 월 최대 판매실적을 또 다시 갱신한 데 힘입어 두 달 연속 9000대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 산업 단신 |



종합숙박 앱 여기어때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액티비티 예약 서비스 출시와 이를 기념한 반값 이벤트'를 알리는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여기어때 워터파크·수상 레저 '액티비티 반값' 행사

종합숙박 앱 서비스 여기어때가 액티비티 예약 시작을 기념해 전국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수상레저, 이색카페 이용권 반값 행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8일까지 진행되는 반값 행사에는 우리나라 대표 워터파크로 꼽히는 웅진플레이도시와 롯데김해워터파크, 블루캐니언, 설악워터피아, 일산원마운트, 피크 아일랜드, 천안오션파크, 도고파라다이스, 리솜해브나인, 블루원, 오션베이, 장암아일랜드 캐슬이 포함된다. 이어 서울랜드와 코엑스 아쿠아리움, 일산 아쿠아플라넷 등 테마파크와 아쿠아리움 30여 개 상품이 정가 대비 반값에 등장한다.

한편, 여기어때는 지난 28일 종합숙박 앱 중 처음으로 600여 개 국내 액티비티의 실시간 예약을 시작했다. 기존 국내 최대 규모의 숙박시설 예약과 함께 워터파크, 테마파크와 같은 대형시설은 물론 경비행기, 제트보트, 패러글라이딩, 썰라인, 열기구 등 액티비티 예약이 동시에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쉐보레 앰버서더 창단식이 지난 1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됐다. /쉐보레

### 쉐보레 '앰버서더' '고객 시승 캠페인' 시승차 100대 투입

쉐보레가 이달부터 총 100대의 시승차가 투입되는 대규모 고객 시승캠페인 '쉐보레 앰버서더'를 운영한다.

2일 쉐보레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500여명의 홈페이지 응모고객 중 선발된 일반 고객 100명과 쉐보레 차량을 소유한 고객 100명으로 출범한다. 7월부터 두 달간 이쿼닉스와 볼트EV, 카마로, 스파크, 말리부, 트렉스 등 쉐보레 대표 제품 시승과 더불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쉐보레 앰버서더 당첨 고객은 '스타일&라이프 앰버서더'와 '드라이빙&세이프티 앰버서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온오프라인에서 차량 시승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하는 포토데이, 양양 서피치에서 열리는 서핑데이, 쉐보레 차량의 퍼포먼스를 체험하는 트랙데이, 중미산 천문대에서 천체 관측을 하는 스타나이트 등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한국타이어

### 신규 계열사 모델솔루션 우병일 대표이사 선임

한국타이어의 신규 계열회사인 모델솔루션이 글로벌 최첨단 디지털 프로토타입 솔루션 기업으로도 약하기 위해 우병일 한국타이어 중국지역본부장(사진)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우병일 대표이사는 1988년 한국타이어에 공채로 입사해 R&D센터, 글로벌 마케팅과 세일즈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OE 부문장 및 중국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글로벌 OE 부문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에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및 일본 대표 3대 완성차, 2015년에는 포르쉐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및 글로벌 완성차 45개 브랜드에 약 310여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일조했다.

또 중국지역본부장 재임 첫해인 2017년에 중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과 글로벌트럭·버스용 타이어(TBR) 공급 유통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 타이어 판매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우병일 대표이사는 "그간 경험해온 글로벌 B2B 전략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모델솔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 그리고 창의적 기업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SK인천석화, 협력사 '안전·상생' 팔 걷어

SK이노의 안전경영 협력사에 적용 무재해 포상·작업중지 권한 부여

SK인천석유화학은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경영원칙에 따라 협력사와 안전경영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말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SK인천석유화학 5개 협력사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들의 최우선 경영철학인 안전·보건·환경 관리 수준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우선 협력사의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로 협력사 무재해 포상 및 작업 중지권 실행을 보장한다. /SK이노베이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이 제도의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SK인천석유화학은 편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워도 작업중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다양한 이행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엔씨소프트 시각특수효과 기업에 220억 투자... "애니·게임 시너지"

엔씨소프트는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에 220억원을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는 2009년 설립한 VFX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VFX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설립 이후 최근까지 봉준호 감독의 '옥자', '설국열차',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올드보이' 등 영화 180여편의 VFX 제작 파트너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테마파크 특



수영상, 가상현실(VR)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을 확보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포스와 엔씨 지식재산권(IP)의 애니메이션화, 최신 디지털 영상 제작 기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

진할 계획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대표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형 포스 대표는 "양사가 IP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만큼 이번 협력으로 양사가 종합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